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삶의 예지

「人生預知」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康 珍 娥

2015年 7月

삶의 예지

人生預知 -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康 珍 娥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年 7 月

康珍娥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仁 植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5 年 7 月

< 목 차 >

1	모든 개에게는 각각의 목표가 있다	p.1
2	구망성의 열쇠	p.3
3	휘바람새와 질러나무	p.4
4	자비	p.5
5	고난을 겪은 후	p.6
6	어느 날 새벽, 날아오르길 바란다	p.9
7	물정	p.11
8	당신의 지지대는 누구입니까?	p.13
9	사람은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p.15
10	경청의 힘	p.19
11	경계의 법칙	p.23
12	미용사의 작품	p.25
13	에덴동산에서 가져온 선물	p.27
14	조용한 행복	p.29
15	마음	p.30
16	마음은 예쁜 작은 상자이다	p.32
17	진실을 생각하다	p.33
18	마음을 소중히 여기다	p.36
19	마음에는 반창고를 붙이지 말자	p.40
20	사장님용 의자에서 일어서세요	p.46
21	어둠의 동굴을 탈출하다	p.52
22	여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p.58
23	어떻게 하면 외유내강 해 질수 있을까?	p.59

모든 개에게는 각각의 목표가 있다

부부에게는 사라와 크리스틴이라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는 그들을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기로 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친구에게 부탁해 강아지를 훈련시키려 했다. 첫 훈련 전에 여자 조련사는 “강아지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강아지가 도대체 무슨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강아지의 목표? 바로 개가 되는 것이죠.” 여자 조련사는 매우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든 개에게는 각각의 목표가 있습니다.”

부부는 상의 끝에 ‘낮에는 아이들과 놀고 밤에는 집을 지킨다.’라는 강아지를 위한 목표를 정했다. 그 후 강아지는 아이들의 좋은 친구이자 집의 수호자로 성공적으로 훈련되었다.

이 부부가 바로 미국의 전임 부통령 아놀드 앨 고어와 그의 부인 디퍼다. 그들은 이 말을 깊이 새겼다. ‘강아지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의미를 넓혀보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도 목표를 가져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간다. 사실 목표를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건은 당신이 목표를 찾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목표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당신 부모님 혹은 선생님, 윗사람이 원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 목표는 당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목표는 당신의 가장 친한 동반자이며 그 밀접한 정도는 당신과 당신 부모님, 당신과 당신의 아내, 자녀, 당신과 당신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넘어선다. 당신이 모든 재산과 지인을 잃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표가 있고, 삶의 체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고독하지 않을 것이며,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어린 아이일 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장했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어떠하든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 깊이 이러한 기대를 옮겨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틔워 당신의 목표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타인의 기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나무와 잎은 뿌리와 맥을 같이 하나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것이 갖는 영혼은 당신만의 것으로, 당신 자신의 힘에 의해서 길러진다.

우리는 종종 세속적인 유행을 자신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 근래 사람들이 돈을 숭상하기 때문에 당신은 돈 모으기를 당신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돈은 그저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생기고 나서도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뿌리로 삼는 것과 같다. 목표는 궁극의 대명사로, 그것은 인생이라는 사막 끝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 영원히 도달 할 수 없다. 행복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성취하는데 있지 않다. 이러한 의의에서 보면, 돈은 궁극의 목표로서 자격이 없다. 한동안 아름다움이 유행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며, 그 또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는 항구불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름다움이 목표라면 아름다워지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름다움은 퇴색하지만 목표는 영원히 빛이 난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목표로 삼는데 이 역시 꼼꼼이 생각해 봐야 한다. 기쁨은 단순한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쾌감만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가장 오래가는 기쁨은 자기 자신의 가치 있다 느끼는 경험에서 온다고 밝혀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이 가치를 느끼는 것은 목표성취에서 나오는데 목표조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치를 논하겠는가!

나무의 목표는 건물의 기둥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함 일 것이다. 그리고 종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고, 일회용 젓가락이 되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린 나무가 아니므로 나무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린 사람이므로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이는 사람으로서의 본분 중 하나이다.

구망성의 열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우주에 노을빛을 띄는 구망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천국이 그 곳에 있어서, 그곳에 도달한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력이 충만해 진다. 구망성은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 인류를 창조한 그날 저녁, 모든 신들은 함께 모여 이 위대한 열쇠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의논했다. 인류가 너무 쉽게 찾아서도 안 되고, 또한 영원히 찾을 수 없어도 안 되기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참동안 의논을 했다. 누군가는 이 열쇠를 바다의 골짜기에 숨기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눈 덮인 산의 꼭대기에 숨기자고 했다. 누군가는 아예 태양 깊숙한 곳에 놓자고 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런 곳에 숨긴다면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의논한 결과 신들은 의견을 통일했다. 구망성의 열쇠를 가장 찾기 쉬우면서도 가장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이다.

신들은 만족스러웠다. 인류는 열쇠를 찾기 시작할 때 결코 이곳부터 생각해 내지는 못 할 것이다. 인류가 하늘의 구름 한 조각과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다 뒤져 보고, 지구의 땅을 다 뒤져보아도 천당의 열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되어 서야 사람들은 실의에 빠지고 사색에 잠겨 어찌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하늘에는 구망성이 빛나고 있다. 모든 구망성에는 기쁨의 천당이 있다. 또한 모든 천당의 벽에는 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구망성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당신의 구망성 열쇠를 찾아보아라. 열쇠를 찾는다면 기쁨과 에너지는 폭포처럼 넘칠 것이며 그때부터 당신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휘바람새와 질려나무

남태평양의 섬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작고 예쁜 새가 있다. 휘바람새라고 부르는데, 모든 새의 부리모양이 다르게 생겼다. 섬에 산물이 풍부했을 때에 새들은 여러 가지 풀의 씨앗을 먹으면서 어렵지 않게 지냈다. 하지만 기근이 왔다. 기근은 온 섬을 덮쳤고, 대지는 굳어버린 뜨거운 화산처럼 검붉게 변해서 초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줄곧 휘바람새를 연구해 왔고, 휘바람새의 다리에 관찰을 위한 표시끈을 달아 두었다. 관찰 결과 새들은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서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

원인은 식량 부족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먹어 버린 상태였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질려’라는 나무의 씨앗이었는데, 그 나무의 씨앗은 온통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어서 새들이 다가갈 수 없었다. 줄기의 깊은 속에는 씨앗을 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맛있는 초콜릿을 철갑 속에 감춰둔 것과 같았다. 질려나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언 스타”로 점령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라틴어 뜻은 ‘고통과 압박’이다.

휘바람새는 자신의 연약한 부리를 이용하여 질려 열매를 쪼아 낸다. 먼저 열매를 바닥에 눕히고, 물고 뜯은 다음 돌멩이에 받쳐서 윗부리로는 힘을 주고, 아래부리로는 압력을 가한다. 기진맥진할 때 즈음 껍질을 벗기고 생명의 씨앗을 먹을 수 있다.

섬에서는 잔혹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다.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는 질려 껍질을 부리로 쪼아대는 것이었다. 많은 휘바람새가 아사했다. 몇몇 새들만이 강인하게 살아남았다. 과학자들은 살아남은 새와 죽은 새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했다.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부리가 11mm인 새들은 질려 열매를 깔 수 있으나, 부리가 10.5mm인 휘바람새는 생명의 잔혹한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0.5mm의 차이가 휘바람새의 생사를 결정지은 것이다. 식량이 풍부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달이 항상 둥근 것이 아니 듯, 모든 것은 변화

무쌍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굵어죽은 휘바람새들이 만약 생각 할 수 있었다면, 자신은 왜 긴 부리를 타고나지 않았을까 탄식했을 것이다. 짧은 부리는 선천적인 것으로, 그들은 대자연의 무정함으로 인해 도태되어 버렸다. 하지만 인류에게 부리 역할을 하는 것은 사고의 힘, 풍부한 경험, 넓은 지혜, 강한 체력, 협력하는 태도, 유머 감각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매일 매일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버팀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비

‘자’(慈)의 사전적 의미는 ‘온화하고 선량하다’이다. ‘자’(慈)라는 글자를 가볍게 소리 내어 읽어보면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온다. 어머니의 손에 감긴 실타래가 떠오르기도 하고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또 선하고 인자한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비’(悲)의 감정은 인간의 칠정 중에 하나이다. 가슴 깊이 느끼는 슬픔으로 연민과 애처로운 감정을 담고 있다. 슬픈 노래, 비극, 이별과 만남은 모두 비(悲)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慈)와 비(悲)라는 두 글자가 함께 쓰이면 묘한 변화가 생긴다. 이 글자들은 마음 심(心)을 부수로 두고 있다. 옛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글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 두 개의 글자에 스스로가 경험한 바를 담고, 또한 이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명하고 감동하기를 기대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튼튼한 팔을 내민 것과 같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재산은 모두 그의 두 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 남을 도왔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 일부분을 선물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명은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피와 골수로 남을 돕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아를 초월하여 훨씬 값지다. 그것은 인류에게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용기와 우애가 충만한 자비로 남을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노력과 시간, 피와 생명으로 봄바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자.

고난을 겪은 후

고난이라는 주제에 흥미가 있는가? 누군가는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다 말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이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려니 겁이 난다. 나에게도 큰 도전인 셈이다. 마치 쓰디쓴 약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면서 혀끝으로 맛을 음미해 보면 더욱 더 쓰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회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함께 미간에 힘을 주고, 이를 꼭 깨물어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나는 독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기 때문이다. 나는 ‘고난’이라는 큰 주제는 비교적 성숙한 사람들 (남자는 턱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여자는 여성스런 몸매를 갖출 때 즈음)이 고민할 문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인재, 부모님의 이혼, 갑자기 찾아온 병과 같은 문제들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민다. 어린아이와 소년이라고 해서 조금도 봐주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선량하게 산다하여 고난을 피해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사실을 증명한다. 고난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어른의 주위에 맴돌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주위를 맴돌기도 한다. 운명적으로 발생한 인생의 풍파를 단순하게 인정의 방과제에만 의지해 막으려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효과적이고 또 중요한 전략은 고난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침착성과 냉정함을 유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가고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영원히 동화 속에 살지 마라.’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

일까? 아마도 동화는 아름답지만 현실생활과는 너무 다르므로 현실세계에선 동화를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훌륭한 동화 속에는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항하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신데렐라를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돌봄도 받지 못했다. (이야기 속에는 신데렐라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지만, 나는 이것이 작가의 실수가 아니라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선택한 두 번째 부인의 품행만 보더라도 사랑에 대한 통찰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계속되는 계모의 냉대와 언니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신데렐라는 공부할 방법이 없었고, 힘에 부치는 온갖 집안일을 해야했다. 아! 이것은 정말이지 청소년 가정학대의 전형이다.

또 다른 예로 ‘성냥팔이 소녀’는 더욱 더 비참하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성탄절 저녁 매섭게 추운 날 성냥을 팔다가 얼어 죽는다니...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광경이다. 중국 티베트 설원에서의 다년간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작가가 묘사한 소녀가 죽기 직전 보았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은 사실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이다. 동사할 지경에 이른 사람은 정신이 마비되고 신비한 환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평소에 꿈꾸어 왔던 것들이 허무맹랑하게 떠오른다. 죽는 순간 웃음 띤 소녀의 얼굴도 의학적 사실에 기초한다. 극도의 추위는 사람의 근육을 심하게 경련시킨다. 나는 의사로 여러 해 일하면서 동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웃음을 띤 듯 보였다.

또한 백설공주는 어떠한가! 친엄마를 일찍 여의고, 계모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질투해 결국 사람을 시켜 죽이려고까지 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마음씨 착한 난쟁이들과 지내게 된다. 은혜를 갚기 위해 고귀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집안일 하고 요리하는 가정부를 자청하는데, 공주와 가정부의 격차는 굉장한 것이다. 여기서 백설공주의 불운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계모는 끝까지 쫓아 와서 독이 든 사과로 그녀를 죽이려 한다.

어떤가? 이제까지 말한 동화 속의 음모와 죽음, 가난과 재난... 이러한 고난에 대응하는 고통과 아픔은 현대인들도 눈물을 흘릴 만하지 않은가.

다른 예도 많다. 인어공주가 지느러미를 다리로 바꾸는 고통, 빨간 망토가 늑대를 대하는 공포, 손오공의 머리를 옥죄는 머리띠와 삼장법사와 함께 겪는 81

개의 고난. 내 말이 맞지 않은가. 동화는 결코 고통을 은폐하지 않는다. 오늘날 어떤 이야기보다 슬프고 처량하며 고통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아마도 동화의 대부분이 권선징악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러한 주인공들의 고통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동화는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이다.

사실, 산 넘고 물 건너가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내가 느끼기에 고통은 감기와 같아서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세상은 영원히 햇빛 찬란하다고 말한다면 기억하라.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고난은 우리가 나아갈 굽은 길에 숨어 있다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두려워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한 고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은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가족과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학업을 중단하고, 팔다리를 잃고 실명하며, 반신불수가 되고 말을 잃으며,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마치 목을 조여 오는 듯해 더 이상 써내려가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의 전부가 아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고난들을 생각지도 못하게 마주치게 된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으므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뉘 보겠다.

첫 번째 길은, 하루 종일 대성통곡을 해서 눈물로 태평양의 해수면을 높이는 것이다. 무덤 주위를 배회하며 늘 떠난 사람을 회상하고 추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대자연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분노할 수도 있다. 고난을 겪은 후에 마음이 어두워져 다시는 웃지도, 관용을 베풀지도 않는 것이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결과는 어둡고 냉담할 것이다.

또 다른 길은 눈물을 멈추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로 간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와 의의를 소중히 되새기고, 자신의 존재로써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더욱 따뜻하고 너그러워 질 수 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겪으면

서 우정과 도움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길을 따라 걷는다면, 결과는 찬란하고 밝게 빛날 것이다.

내가 말한 두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고난을 겪고 나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부디 심사숙고 한 후 행동하기를 바란다.

고난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한 그를 더욱 강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고난을 겪어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고난의 폐허에서 생명의 나무가 푸르르길 바란다.

어느 날 새벽, 날아오르길 바란다.

원래 ‘압(壓)’이란 글자는 물리적인 용어다. 예를 들어 기압, 수압, 풍압 등이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의학적으로 혈압, 뇌압, 두개뇌압 등등 모두 전문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변해서 사용빈도가 높은 글자가 되었다.

생활에 압박을 느낀다, 경제적으로 압력을 느끼다, 학업에 압력을 느끼다, 승진에 압박을 느끼다, 국제관계에 압력이 있다, 감정에 압력을 느끼다, 결혼의 압박을 느끼다 등등.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압력, 즉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스트레스는 마치 옆질러진 휘발유통처럼 현대인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서 진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다. 우리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해 버린다.

사실 적절한 압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기에 압력이 없다면, 우리는 탈진해 버릴 것이다. 또 혈액에 압력이 없다면, 우리 몸의 사지에는 곧 마비가 올 것이다. 만약 수도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까. 고층 아파트 높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 할 것이다. 먹고 마실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중국의 석유영웅 왕철인

(王鐵人)도 압력이 없다면 우물에서 기름을 추출하지 못했을 것이며 인간도 마찬가지로 압력, 즉 적절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장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의 적정 수준이다. 겨울에 따뜻한 태양이 몸을 비추는 것은 가벼운 자극으로 우리에게 에너지와 따뜻함을 준다. 이 스트레스가 10배 가중된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투르판 분지의 여름이 되어서 동굴에 숨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 자극이 계속되어 100배, 1000배의 강도가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사람들은 숯덩이가 되어버릴 것이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한가지의 스트레스가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의 스트레스만 두고 볼 때 강도는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어 쌓인다면 산처럼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기계도 일을 하다가 쉬어야 하는데 육체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루가 되어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독서를 '한가로운 취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한가할 때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히며 책을 읽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나는 바쁜 사람일수록 더욱 책을 읽으라고 권유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다. 다 읽고 나면 바쁜 스케줄이 조금은 정리가 되고 한숨 돌리며 팔다리를 쭉 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스트레스의 면면을 알기 위해 스트레스의 모호함과 불분명함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몰래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독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스트레스의 총체와 그것이 발현하는 기제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와 종류를 안다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정신이 혼미하고, 자신의 생일과 가족 모임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일 위한 것인지 잊어버렸다면, 당신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해라. 스트레스의 기승전결을 이해하고 자신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호흡이 가벼워지고 가슴 속의 분노가 조금씩 풀

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스트레스의 포위망을 뚫고 홀가분히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물정(物情)

나에게는 낡은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8086모델로 286컴퓨터 보다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이 컴퓨터는 게으름을 피우는 법 없이 백 만 글자 이상의 문서도 쳐낸다. 이사를 할 때 나는 갓난아기를 뽀뽀 싸듯 숨이불로 컴퓨터를 싸서 내 무릎 위에 놓았다. 정말이지 지극히도 소중히 다뤘다. 조용히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길가 도랑에서 운전사의 부주의로 차체가 세차게 요동쳤다. 집에 도착해서 황급히 컴퓨터를 살펴봤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전원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다. 깊은 동면에 빠져 버린 것이다. 키보드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새까만 화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는 소위 컴퓨터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갔다. 그 분들을 만날 때 마다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부디 반신불수가 된 나의 컴퓨터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모두 비슷했다. 이 오래된 컴퓨터는 내진 기능이 떨어져서 내부 시스템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이 컴퓨터를 만든 IBM의 기술자와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컴퓨터를 처분하고 새 것을 사는 것이었다. 마음 좋은 한 기술자는 타이르듯 되도록 빨리 버리라고 말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말이다.

아무런 가망이 없기에 새 컴퓨터를 샀다. 새 컴퓨터는 아주 훌륭했지만 문제는 오래된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내 컴퓨터가 쓰레기와 한데 섞여서 썩어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키보드 판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나의 셀 수 없이 많은 지문이 묻어 있다. 수많은 밤, 가족들은 잠이 들었을 때도 이 충성스런 컴퓨터만이 나와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이 컴퓨터는 프린터기와 연결되어 있

어서 내가 쓴 원고 초안이 인쇄되어 나올 때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부와 같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낡은 컴퓨터를 보관함에 넣었다. 비닐로 잘 싸고 나일론으로 묶어서 집 후미진 곳에 두었다. 한해 두해 지나다보니 그 컴퓨터는 작은 방에 공간을 차지해가면서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진상을 알고 있는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아직도 버리지 않았냐며 물었다. 도대체 문화재로 소장하고 싶은 건지 아님 나중에 컴퓨터 박물관을 차릴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나는 결코 그런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땀과 피를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경찰견과 군마도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다. 그러므로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조수인 내 컴퓨터에게도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했다.

‘물정(物情)’이란 단어가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물건과 사람간의 애뜻한 감정을 말한다.

고대 사람들은 물(物)이란 글자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외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 슬퍼하지 않는다.(不以物喜, 不以己悲)' 라는 명언에서 볼 수 있듯이 물(物)에 집착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보고, 물(物)을 숭상하는 사람을 소인으로 여겼다. 또한 신외지물(身外之物) 즉, 재물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이라, 경시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서 물(物)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력의 상징이자 호화롭고 거대한 물(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삶과 동행한 그런 작은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물건들은 평범하고 빛깔이 어두우며, 오래된 냄새를 풍긴다.

현대 사회의 리듬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예전에 할머니가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의자를 가리키며 이 의자는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혼수품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가구는 3년 내지 5년이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추억의 그리움을 느낄 수가 없다. 과거에는 옷 한 벌이 있으면 큰아이가 입다가 작은 아이에게 물려줘 입히고 최후에 남은 헌 옷 조각을 신발 바닥에 붙여서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동행하게 했다. 오늘 날, 헐어서 입지 못하는 옷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유행이 지나버린 스타일이라서 버려진다. 일회용 젓가락이나 일회용 도시락은 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다. 밥을 먹을 때, 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상아색의 일회용 그릇으로는 엄마가 도시락통에 담은 그 따뜻함을 결코 맛볼 수 없었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설령 고난을 겪고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점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면서 그것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다.

물정(物情)은 아마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말이다. 일회용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기의 기저귀부터 성인들의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일회용이다.

아마도 어느 날 나 역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나의 컴퓨터를 쓰레기통에 버릴 지도 모른다. 낡은 컴퓨터가 차지하던 공간을 정리하면 집이 조금은 넓어질 것이다. 그때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택할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할 일이 늘어났다고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우정 때문에 달빛을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지대는 누구입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위에 ‘나의 지지대’라고 써 달라 부탁했다. 종이의 왼쪽에는 ‘사람의 성명 혹은 호칭’이라고 써주고, 오른쪽에는 ‘나와의 관계’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럼 되도록 빨리 시작해 보자. 깊이 생각할 것 없다. 당신이 알고 있듯이 모든 심리테스트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며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워 와서는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지지대가 있다. 마치 한 울타리를 세우는데도 말뚝이 세 개 필요하듯, 영웅도 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기둥은 궁전의 지지대이고, 두 다리는 신체의 지지대이다. 잃은 꽃의 지지대며, 다리기둥은

큰 교각의 지지대이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지대가 없다면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지지대라는 것은 세상을 떠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이며, 먼 길을 떠날 때에 쉼터이다. 우리가 우울할 때 그곳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또한 기쁠 때에는 소년 시절로 돌아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의 요양지를 당신은 얼마나 비축해 놓고 있는가?

내 남편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 테스트를 다 했다면 먼저 결과를 들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좋아요. 알려줄게요.”

나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썼다.

그리고 그 날의 교실을 회상했다.

침묵. 이런 상황은 심리 테스트를 할 때면 자주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다가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펜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단 이렇게 시작만 하면 거침없이 써내려간다.

학생들은 몰두해서 써 내려갔고,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지지대를 묘사했다. 기본적으로 가족, 친척, 학우, 선생님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친구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고, 이제까지 축적해온 풍부한 자산을 보니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앞날에 더욱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다. 나의 지지대는 유년기 친구부터 최근 직장 동료까지 나의 삶을 포괄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해변의 조개껍데기처럼 그것은 삶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한 친구의 지지대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나의 지지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탱하며 사상이 나를 지지한다고 말이다. 아마 문화혁명 시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밀고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는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 친구의 솔직함에 감탄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분명히 지지대가 없음에도, 이름 몇 개를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자신의 쓸쓸한 진실을 숨긴다. 하지만 왜 자신의 지지대를 쓰는 칸이 공백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 빈칸을 모두 가족의 이름으로 채워 넣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만약 중학생이 자신의 지지대가 모두 또래친구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진상을 명확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지대의 성별이 단일화된 경우도 이상적이지 않다. 이상적인 지지대는 남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사람은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전에 친구가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식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증조부는 그를 불러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얘야, 내게는 일생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단다. 내가 이것은 얻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여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것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어. 공부는 자고로 어렸을 때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미완성의 것을 건네주는 것 보다 네가 처음부터 시작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옛날 강남(江南)지역에는 책을 소장하는 것에 무척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던 부자(富者)가 있었다. 그의 집에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서 두 권이 있었는데, 수많은 의사들의 성과물을 모아놓은 것으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으뜸가는 것이었다. 부자는 마치 귀한 보물을 여기듯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서재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 부자가 길을 나섰다가 강도를 만났다. 마침 지나가던 장사가 위협에 빠진 그를 보고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부자는 감사한 마음에 돈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다. 하지만 그 장사는 돈도 귀중하고 가치가 있으나 내가 구한 너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자는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의 목숨이냐고 말했다. 장사는 크게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부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3일 동안 의서를 빌려 주겠으나 3일후 정오

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부자는 나무로 만든 목재 책꽂이 깊은 곳에서 단향 나무 냄새가 베인 의서를 꺼냈다.

장사는 이 책을 얻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는 고향의 선비 여럿을 데려다가 밤낮으로 의서를 베껴 쓰도록 하였다. 책은 유일본이었고, 시간도 촉박했다. 등불 아래서 혼신의 힘을 다한 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모두 베껴 쓸 수 있었다. 장사는 부자를 만나서 의서를 돌려주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앞으로는 이 보물과도 같은 의서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베껴 쓴 의서를 의사에게 보여 주었더니,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이 허둥지둥 베껴 쓴 의서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 어떤 의사도 이 책에 나온 지식을 가지고 환자의 몸에 시험하려하지 않았다.

장사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을 버리지 못하고, 황급히 부자의 집으로 갔다. 자신의 큰 뜻을 말하고 의서를 다시 한 번 빌려 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치솟는 불길이었다. 부자의 집이 돌연 벼락을 맞아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로 장서각에 보관 중이던 모든 고서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이 두 권의 옅게 적은 의서가 마치 계륜(鷄肋)처럼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다. 누구도 이 책의 처방을 감히 사용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 누구도 이 책을 버릴 수 없었다. 종이가 노랗게 빛이 바래고 표지도 떨어져 나가자 후세들이 다시 한 번 정성들여 옅게 적었다. 하지만 문맥이 도무지 매끄럽지 않아서 사람마다 자신이 이해한 대로 옅게 적는 바람에 이 책은 또 다시 교정이 되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어지럽고 난해한 글이 되어버렸다.

증조부는 여기까지 말하고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손에 들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두 권의 책입니까?”

증조부가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나서서 틀린 부분을 고치기를 원합니까?”

증조부가 말했다. “네가 일생의 노력을 쏟아 이 책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길 바란다. 하지만 네가 한말의 절반만 맞았다. '이 책들'이 아니라 '이 책'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너의 일생으로는 두 권을 모두 교정 할 시간이 없다. 지금 한 권을 선택하거라. 남은 한 권은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하자.”

할아버지는 똑같이 생긴 파란 표지의 책 두 권을 두고 고민했다. 마치 잘 모르는 미인 두 명을 두고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찌 할 바를 몰라 했다.

증조부는 1번 책과 2번 책은 난의도도 똑같고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도 같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재촉했다.

할아버지는 위의 놓인 1번 책을 선택했다. 그는 이 순간 짧은 선택으로 자신의 삶이 미지의 영역, 새로운 일과 인연들이 뒤엉켜져 갈 것이라 알아차렸다.

“좋다.” 증조부는 할아버지가 선택한 1번 책을 그의 손에 넘겨주고, 2번 책을 들여놓으면서 할아버지가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할아버지가 고민만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자신의 일생을 이 책의 오류와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시간을 들였다. 그 책의 모사가 불분명한 약재 도감이 있으면 직접 깊은 산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처방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약을 달이고 자신의 몸에 시약을 하다가 몇 번이나 혼절을 했다. 불분명한 한 구절을 위해서 수많은 고적을 읽었다. 그 책은 마치 맷돌의 축심처럼 천문지리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식이 관련되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 하나하나 검증했고, 결국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책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할아버지의 일생은 이 의서의 부활을 위해, 파릇파릇한 소년 시절부터 귀밑머리가 하얗게 변한 지금까지 보냈다.

이치대로라면 할아버지는 수많은 의서를 읽었으니 시대의 명의를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박학다식함은 오로지 이 한 권의 책만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것은 책에 써진 처방이 정확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다른 영역에서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미지의 사물과 오류교정에만 흥미가 있었기에, 일생은 고되고 빈곤하게 보냈으며, 한 번도 그의 지식으로 환자를 고치거나 그로써 돈을 번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점점 기력을 잃을 때쯤, 그는 마침내 그 책의 모든 오류를 완전히

바로 잡았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책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눈이 빛났다. 마치 자신의 일생이 막바지에 왔다는 사실을 안 듯했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드디어 이 위대한 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 떨어진 한 고묘에서 수많은 고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이 책의 원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람들은 바로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책을 원본과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할아버지의 책은 원본과 완전히 일치했다. 할아버지 자신 스스로도 놀랄만한 의지와 광범위한 지식, 또 치밀한 사고에 뛰어난 직감이 더해져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어둠속에서 탐구해 나간 결과, 이 책이 전해져 오면서 잘못된 모든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일생의 에너지를 들어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 기적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원본이 출토되었으니 할아버지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보람 없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고서만을 기억했고, 누구도 할아버지와 그의 고된 일생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친구는 긴 침묵을 유지했다.

“무덤 안에서 2번 책도 출토되었니?” 내가 물었다.

“아니.” 친구가 대답했다.

나는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할아버지가 처음 책을 선택하던 그 순간에 2번 책을 선택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텐데...”

친구는 말했다. “나 역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질문을 했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1번 책과 2번 책은 다를 바 없다. 나는 일생동안 한 가지 진리를 증명했다. 전력투구하여 어떠한 문제를 탐구하면 진리에 아주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할아버지는 하늘이 내린 두 개의 수수께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노력은 모든 것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경청의 힘

심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작문 숙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경청’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사람은 귀가 두 개씩 있고 청력을 잃지 않는 이상 듣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잠에 들면 눈은 감겨있지만 귀는 열려 있어, 인기척이 들리면 깨나게 마련이니 경청을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 여겼다. 또한 내가 내과 의사로 지낸 몇 년 동안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마음 가득한 고통을 들어주느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으니 나에게 경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료를 찾으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청’에 불합격 점수를 받고 있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학력이 높지 않다면 길으로만 듣는 척을 하게 된다. 또 말하는 사람이 지루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무례하게도 말을 끊어버린다. 만약 허튼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지루한 표정을 내비치고 만다. 이뿐만 아니라 화자가 정확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비꼬듯 말해 그를 난감하게 만든다. 나 또한 수없이 많이 해봤기에 그때를 생각하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세상에 선천적으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가뭇에 콩 나듯 드물다.

못 믿겠다면 다 같이 실험을 해보자.

친한 친구 한 명을 불러서 내가 지금 너에게 속마음을 이야기 할 건데 너는 절대 열심히 들어서서 안 된다고 말하라. 너는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려도 되고, 아양을 떨어도 되고, 음악을 듣던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내 말의 화제를 돌려도 된다. 뭐든 다 해도 좋으니 내말을 듣지 않으면 된다.

당신 친구가 당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 게임이 시작 된 것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 슬픈 일을 선택해라. 감동적일 수록 좋고 절대로 조잡한 이야기 여서는 안 된다.

좋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라.

내 추측으로 당신은 오래 말을 이어가지 못 할 것이다. 길어봐야 3분이면 이야기가 끝날 것이다. 어떻게 해봐도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고통

과 슬픔에 무관심한 친구를 두고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입을 닫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낙담하고 분노 할 것이다. 이 친구는 당신의 마음을 볼 자격이 없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친구와 점점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 할 것이며, 심지어 이 사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나고 말할 것이다. 나는 책임지고 대답하겠다. 정말 그러하다고. 우리가 놓친 기회와 잘못된 정보, 눈앞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 친구들, 심지어 헤어진 연인과 끊겨버린 인연도 모두 우리가 경청을 배우지 못해서이다.

좋다. 이 기분 나쁜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번에는 같이 신나는 게임을 해보자.

이번에도 역시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함께 하는 게임이다. 이번에는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가슴깊이 담아둔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당신은 몸을 친구 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는 것이다. 친구의 눈을 숨죽여 바라보며 그의 감정 변화에 따라 함께 파도치는 것이다. 그가 기뻐하면 당신도 마음의 미소로 대답하고, 그가 슬퍼하면 당신도 슬픈 눈을 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 따뜻하게 손수건을 건네주라. 그가 한참동안 침묵한다면 당신도 그와 함께 침묵하라.

아주 간단하다. 친구가 말을 마치면 게임이 끝난다. 친구에게 이렇게 그의 말을 경청해 주는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라.

아마 친구는 나의 존중과 관심을 느꼈으며, 이로써 고독이 위로가 되고 낙담했던 마음에 빛이 비추었으며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감되었다고 말 할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한명이며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이다.

나는 원래 경청의 경(傾)이라는 글자가 몸을 앞으로 완전히 숙이는 신체언어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표하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경청에 대한 나의 이런 해석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경청은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傾)은 마치 傾巢出动(병력을 총 동원하여 출동하다), 傾箱倒篋(상자 채로 쏟아 놓다), 傾國傾城(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인), 傾盆大

雨(비가 억수로 쏟아지다)와 같은 것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하는 모습을 말한다.

조금 과장 되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경청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사람의 심리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듣기와 말하기는 중요하다. 말하기는 주로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듣기는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으로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말하기와 듣기는 봉새의 날개와도 같아서 잘 어우러져야만 구만리를 날수 있다.

현대의 생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사람의 일생은 더 이상 촌이나 작은 마을에서만 국한 되지 않고, 중횡무진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간다. 그렇기에 접촉하게 되는 사람은 몇 십 명이 아니라 수 천 수 만 명에 다다를 것이다. 서로를 대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이해시키고, 당신은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 또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품격 있는 예술이 된다.

오늘날 청소년을 위로하고 자신을 고무시키는 종류의 책들이 많다.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지 가르치고, 짧은 첫 만남에서 어떻게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어떻게 면접을 치르며, 첫 눈에 반한 이성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등등 적지 않은 묘책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기술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재주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좋은 인간관계를 향유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듣기가 말하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면, 우리는 듣기를 먼저 배운다. 내가 '배우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만약 듣기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일생동안 어떻게 듣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이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숙연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며, 아이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아이의 순수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의 비애를 느낄 수는 없을 것이며, 마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영혼을 대하는지는 모를 것이다.

아기였을 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듣는다. 가족의 소리를 듣고, 대자연의 비바람 소리를 듣는다. 또한 먼 곳의 소식을 듣고 사회의 약속에 대해 듣는다.

이는 일종의 불분명한 자질로서 더욱 발전시켜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잃을 수도 있는 능력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청을 연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외면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다. 예를 들어, 만패불청(萬霸不聽), 청이불문(聽而不聞) 등이 있다. 맞다. ‘문(聞)’자에 대해서는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과 같은 조금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다.

듣기는 배워야 하는 것이며, 말하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관련된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과녁 없는 화살이 되고 만다. 경솔한 사람들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면 침을 튀기며 말하기에 바쁘다. 사실 침착하고 조용하게 듣는 것이 최고의 경지인데도 말이다.

열심히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 주변에 대해 정확히 감지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안목과 포부를 넓힐 수 있다.

독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경청이다. 글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번역의 도움을 받아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청은 인생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어,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경청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 주어 세상은 아주 넓으며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경청은 사람을 평온하게 하여 고독과 고통은 절대로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해준다. 또한 경청은 사람을 각성하게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과 기술 좋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경청은 아름답다. 당신은 세상이 이렇게나 오색찬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니 경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복의 표지이다.

경청은 단계별로 나뉜다.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물과 같이 안정을 가지고 들어야만 그의 말과 그 속에 담긴 말 까지도 들을 수 있다. 젊은이들의 좋지 않은 습관은, 스스로가 경청의 모든 요소를 이해하고 있으며, 경청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 주는 지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잠시 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지 생각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거짓 경청’은 아주 쉽게 밑천이 들통난

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허점이 바로 발각 되고 만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하는 두 사람은 사실 가장 위험한 적일 수도 있다. 모든 대화는 영혼에 기록된다.

경청은 매우 진실된 것으로 조금의 거짓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청은 진실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경청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당신이 거짓으로 경청한다면 그것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경청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결과를 위한 책략으로만 여기지 않을 때 경청은 나에게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경청은 어디든 존재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당신이 겸손하게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솔바람이 부는 소리와 눈이 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미의 웃음소리와 단풍잎의 탄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등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내심은 견실한 기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은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값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믿음과 지지이다.

젊은이들이여, 경청을 배우자. 침묵을 지키며 앉아 빛나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자신의 오만과 허영을 버리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신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소리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을 것이다.

경계의 법칙

의학공부를 하던 때였다. 하루는 약리 교수님이 어떤 새로 나온 항균약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 약은 세균 벽의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세균을 죽게 하는 것이다. 세균 벽이 없어진다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마치 동물의 가죽이 없어지듯 뼈와 살이 죽처럼 너털너털 해지고 진득진득해지는 것이다.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체에도 위협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겉껍데기, 즉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 경계를 잃게 되면 생물의 생존과 성장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교수님은 하등 생물을 언급하셨지만, 고등 생물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경계라는 것은 아주 오래 된 것이며 또한 신비한 것이다. 동물은 넘새로 자신의 세력범위를 뒤덮는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경계를 자신의 오줌으로 영역 표시하는 것이다. 경계에는 또한 권위와 통제력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는 곧 전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간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충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장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회계사가 범법을 저질러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한 경계는 건강과 존엄을 의미한다. 무엇을 두고 새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가? 바로 융합에서 분리를 하고, 혼돈에서 완전한 독립의 개체를 만들어 내며 참신한 경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간에 경계가 사라진다면 그 사람의 주관과 사색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정신이 마비되고 사고가 미개해 진다.

겉껍데기 말고도 사람간의 경계 즉,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예외범절 책에서는 특별히 주를 달아 사람과 사람간의 가장 최소한의 거리는 17인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자.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의 버스에서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 바짝 붙어 서곤 하는데 17인치가 아니라 1.7인치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언짢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 이 경계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데, 특히 부부간에 그러하다. 결코 자신의 경계를 없애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의기투합하던지 결국은 다른 개체이며 완전히 일치될 수 없다. 만약 완전히 일치가 되어 버린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과 항상 함께 그림자처럼 같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귀찮지 않겠는가?

경계에는 특이한 법칙이 있다. 가까워지는 것은 쉬운데,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둘 것인가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면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당신과 상대방은 모두가 흡족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경솔하게 계속하여 거리를 좁히기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짧고 깊은 만족감을 느낀 후에, 곳곳의 모순은 저승사자처럼 나타나서 딱 닫혀있는 사랑의 문을 두드린다. 경계가 다시 생

기면서 덩굴이 방방곡곡에 자라나고, 깨진 무늬들이 에돌아 감싸 자신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을 것이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후반전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가 울린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있다.’ 라는 말은 이 이치를 말하고 있다. 당신이 경계를 기억하든 못하든, 그것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경계는 일단 한번 없어져 버리면, 옛날 실로 만든 치마처럼 수선하기 쉽지 않다. 아주 가는 실과 긴 인내심,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감상에 빠지며 회상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은 거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결합을 한 후에는 견디지 못하고 소원해 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분리를 애정이 깊지 않아서 이거나 감정의 위기라고 해석한다. 그러니 당신이 애정없이 서로의 경계를 없애는 것은 마치 인화성 위험 물질을 감정 열차에 투하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안전한 경계를 정해라. 1.7인치 일 수도 있고 2.7인치 일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므로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다. 이 경계 안에 당신의 비밀을 잠재워 두고 자유를 깨워라. 경계의 울타리는 단단하고 뚜렷하며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어온다. 당신의 경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당신 반려자의 경계도 마음 깊이 존중하라. 두 개의 화단이 태양 아래서 다른 꽃을 피우게 하고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도록 하라. 흙을 함께 들 필요도 없고 당신의 말뚝을 같이 없앨 필요도 없다. 시도 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니, 한번 해볼 필요도 없다. 거리가 없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당신이 한번 씩 견딜 수 없을 때면, 약리 교수님의 말을 생각하라. 당신은 자신의 결혼이 용화되어버린 한 덩이의 세균이 되어 버리길 원치 않을 것이다.

미용사의 작품

유명한 제조업체가 있었다. 업체는 옷과 화장품, 다양하고 예쁜 장신구까지 취급했다.

어느 날 이 업체는 성대한 상품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신사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최고의 미용사를 고용하여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에서 체격이 좋은 부랑자를 찾았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인상이 어두웠다. 미용사는 먼저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나중에 변화한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미용사는 먼저 향기로운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이발을 시켰다. 명품 면도기로 수염을 깎고, 좋은 성분이 함유된 로션과 크림, 아이크림을 바르고 또 덧발랐다.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나서는 신장과 피부색을 고려해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와 양복과 넥타이, 심지어 지팡이와 비싼 모자까지 맞춰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난하고 불품없던 남자는 업체의 물품들로 새롭게 포장이 되어 단정한 신사로 변신하였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감탄해 마지 않았고, 업체의 매출액은 급증하였다.

그 후에 사장은 이 환칠한 신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하기로 했고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신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삼일, 사일이 지나도 신사는 오지 않았다. 사장은 부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고 마침내 그를 찾았다.

신사의 얼굴에는 짧고 흰 수염이 나 있었고, 몸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양복과 넥타이, 값비싼 모자도 모두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들을 판 돈으로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는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휴지통 옆에 누워 있었다. 지팡이를 머리에 베고 말이다.

사장은 그를 깨우며 말했다. “미용사가 당신의 외모는 바꾸었지만 내면까지는 바꾸지 못했군요.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가길 원합니까?”

부랑자는 몸을 일으키며 사장을 따라갔다. 그 후에 그는 내면부터 외면까지 완벽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의 외모를 바꾸는 것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화장품과 옷으로 충분하지 않다. 직업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가져온 선물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을 떠나면서 선물 두 가지를 가져갔다. 이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일지 나는 몇몇 사람에게 물어봤다. 어떤 사람은 나뭇잎일 것이라 말했다. 하와는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으니 가지고 갔을 것이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숙여 지혜의 나무에서 사과를 따 먹게 한 그 나쁜 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뱀을 데리고 왔을 거라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온 세상에는 독사처럼 비열한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겠냐는 말과 함께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과 씨앗이라고 말했다. 하와가 과일을 먹고 맛이 너무 좋아서 씨앗을 몰래 몸에 숨겼을 것이라며.

하느님은 분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 아담은 인간세계를 한번 훑어보고는 온간 고난과 위험이 끊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과 하와에게 닥친 고통과 고생이 두려워 졌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 고난을 이겨낼 보물을 몇 가지 보내주라고 빌었다. 하느님은 좀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다.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보내주마. 하나는 휴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물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내린 최후의 선물을 지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모진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로 들어 왔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직 어렸고, 하느님이 인색하다고 생각했다. 휴식은 원래 자기의 것이고, 눈물도 원래 자신의 것인데 하느님이 선물로 보낼 필요가 있는가? 완전히 생산자가 직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치면 누워서 쉬고, 상심하면 소리 내서 우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아예 냄새 좋고 달콤한 과일을 주는 것이 낫겠다.

나이가 들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내 자신의 번뇌와 타인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휴식과 눈물이 비교할 수 없이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휴식은 무엇인가? 긴 여정에서 차를 마시는 여유이며, 아무 일 없이 앉아 새벽 가을바람에 낙엽을 바라보는 것이다. 따분할 때 내뿜는 기지개이며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의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잡담이다. 이러한 것들은 게으른 휴식이다. 게으른 휴식 말고 물불 가리지 않는 휴식도 있다. 높은

곳에 오르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며,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맹수와 동침한다. 식은 땀이 흐르는 자극을 원하며 놀라운 모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휴식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쁨을 위한 다는 것이다. 휴식은 돈과 시간을 포함해 많은 것을 소모시킨다.

눈물을 이야기 해보자. 인간은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은 아마 대소변 말고 우리가 주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체액일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시험해 보라. 힘들게 노동을 했거나 과도하게 긴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에게 땀을 내라 명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눈물은 우리의 대뇌에 가까운 두 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다. 눈물은 우리의 악하고 강력한 감정을 그 안에 응해시켜 독소를 분출하도록 한다. 이로써 거룩함과 평안함을 침전시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 눈물은 어두운 두 눈을 씻어 내여, 다시 맑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눈물은 감정이라는 화산폭발의 마그마로, 쓰디쓴 물을 다시금 거세게 떨어뜨려, 대량의 신선한 혈액을 대뇌로 보낸다. 혈액이 팽창되어 피가 흐르는 것은 마치 황하물이 마른 평야를 촉촉하게 해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과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것과 같다. 사고는 이렇게 싹을 틔우고 연장된다.

현대인은 휴식시간을 방치하며 눈물을 경시한다. 그들은 휴식과 눈물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회사에서 기간이 지나 분쇄 처리된 종이문서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휴식을 자신의 스케줄에서 지우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와도 같다. 여태껏 한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 없다면 비참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쉬어야 할 때 쉬도록 두자. 눈물을 흘려야 할 때에는 울자. 이는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한 생명의 비법이기도 하다.

조용한 행복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든 생각은, 마치 종이처럼 삐쩍 말랐다는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나에게 삶의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지만 곧 그녀의 흉수 같은 슬픔에 나도 잠겨버렸다. 이 세상에는 특이할 만큼 운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그중에는 특히 여자가 많은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재앙은 마치 상어 때 같아서, 누군가의 상처에서 피비린내를 맡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 그의 혈육을 마음껏 쪼아 먹는다. 그 사람의 영혼이 백골이 될 때 까지 말이다.

"처음부터 나는 내 일생이 불운 할 것이란 걸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암담한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 생동감을 넘어서 일종의 깨달음의 기색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내가 물었다.

"내가 어릴 때 한 도사가 이 꼬마는 관상이 좋지 않아서 평생 운이 없을 것이라 말했어요. 나는 이 말을 푹푹히 기억해요. 내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나를 좋아 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을 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황급히 술고래한테 시집을 샀어요. 그는 못생겼는데 나는 못생긴 사람이 더욱 상냥하고 나에게 잘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었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왜 자신이 운이 있을 것이라 믿지 않나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음... 그 도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는 말했다. "아마도 액운이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은 손바닥을 등 뒤에 감추어 버려서 당신은 행복과 손을 맞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액운이 당신에게 눈을 깜빡거리면 당신은 짹짹 붙잡았어요. 도사가 당신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쓰다듬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내게는 행운의 기회가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거부하면서 나의 하늘에는 상운이 떠다니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행운은 조심스럽다. 조우할 때는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먼저 인사하지도 않는다. 떠날 때도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는다.

행복은 병어리다.

마음

함께 마음(心)이란 무엇인지 토론해 보기에 앞서서, 심(心)이란 글자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내가 초등학교일 때 제일 처음 심(心)이란 글자를 배우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심(心)은 콩을 볶고 있는 국자 모양입니다. 볶으면 콩이 이리저리 튀다가 결국 콩 두 개는 국자 밖으로 떨어지고, 콩 하나만 운 좋게도 국자 속에 남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심(心)이라는 글자를 이렇게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이던 나에게 평생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이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종 콩을 담고 있는 국자의 재미난 모양을 생각하기도 한다.

국자가 담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설령 흉년이 들어 절간에서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도, 솥은 아주 크지만, 국자는 용통성 없이 작기 때문에 한주먹 밖에 뜨지 못한다. (국자가 너무 크다면, 죽은 모자랄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위대한 문호의 명언을 인용하여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하늘보다도 넓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말은 깊고 위대한 명상을 할 때만 이리하지 결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넓은 것은 아니다. 평소에 마음은 녹슨 쇠 국자에 불과하다.

마음은 녹이 슬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가지 산성과 알칼리성이 함유된 비바람이 침투하기 때문에 틈사이로 좁이 생기고 성장에 방해가 된다. 날씨가 화창한 날, 마음에 태양빛을 쬐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녹이

사라질 것이다. 아름다운 대자연과 서로를 잘 이해하는 친구가 바로 햇빛이다.

모든 사람은 국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일생동안 많은 콩과 조우하게 된다. 국자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국자 안에 너무 많은 물을 부어 넣어서는 안 된다. 물에 꿀을 타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 중국 전통 의학에 大喜伤心(크게 기뻐하면 심장을 상하게 한다)라는 잠언이 있다. 바로 정도를 넘어 섰을 때의 해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국자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국자 속에 넣을 수 있는 양을 잘 판단해야 한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국자는 사람을 상심하게 할 것이며, 견디지 못하고 넘쳐버린 국자 또한 비극이다.

곰곰이 생각해서 콩을 선발해도 자신이 싫어하는 콩이 국자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볶아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볶고, 열을 가해서, 햇빛에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신은 국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콩에게 관용을 베풀어 받아들일 것인지 계속 되풀이하며 헤아려 보는 것이다. 국자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즉시 결단해야 한다. 사고는 시간과 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칼을 들고 물을 베는 전쟁과도 같다. 결국 가장 중요한 콩만 남게 되고, 나머지 콩들은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생각할 때는 즐겁지만, 사실 고통과 우여곡절이 가득하다. 모든 콩 한 알 한 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자 속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감정과 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쭈글쭈글한 콩과, 벌레 먹은 병든 콩도 오랜 기간 매만지고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체온이 전달되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관성과 미련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한다. 이 순간, 명석함과 더불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썩은 콩을 밖으로 내쳐버리면 마음이 넓어지고, 국자는 다시 깨끗하게 가벼워진다. 새로운 콩은 새로운 손님처럼 천천히 온다. 마음에 항상 귀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말라.

마음은 아름다운 작은 상자이다

어릴 때 공부를 하다가 ‘심(心)’을 편방으로 하는 글자가 너무나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예를 들면 념(念), 상(想), 의(意), 망(忘), 자(慈), 감(感), 수(愁), 사(思), 악(惡), 위(慰), 혜(慧) 등등. 정말이지 대가족이다.

이 한자들처럼 마음심(心)을 밑에 두는 한자 말고도 옆에 두는 글자도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억(忆), 회(怀), 쾌(快), 파(怕), 괴(怪), 뇌(惱), 한(恨), 참(慚), 초(梢), 관(慣), 석(惜)… 등이 있다. 내가 여기 까지만 쓴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 계속 써내려 간다면 내 학식을 뿜내는 격이 되어 버릴뿐더러, 사전을 베꼈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시들로 봐서 옛 조상들이 글자를 만들 때 얼마나 마음심(心)의 역할을 중시 했는지 알 수 있다. 가로 부수로 쓰는데 그치지 않고 글자를 세워서도 부수로 사용한 것이다.

사실 의학의 해부학 관점에서 봤을 때, 심장(心)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주요역할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것으로 마치 펌프처럼 기계적인 일을 할 뿐, 결코 사고를 주관하지 않는다. 한자에서는 정서와 지혜를 나타내는 말을 모두 이와 연계시켜놓는다. 이는 잘못된 것 같다.

진짜로 우리의 사고를 통솔하는 것은 대뇌이다.

대뇌는 신기한 기관이다. 학자들도 사실 대뇌를 이용해 대뇌를 연구한다는 사실 역시 재미있다. 머리는 얼마나 클까? 만약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커봤자 큰 코카콜라병 세 네개 정도의 물을 넣으면 가득 차버린다. 아이의 머리 크기는 캔 음료 몇 개면 넘쳐 버릴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든 아이든지 사람들은 모두 뇌를 ‘바다’로 표현한다. (중국 사람들은 ‘뇌의 바다’라는 표현을 쓴다) 거센 파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해(大海)로 말이다. 이는 왜일까?

대뇌는 우리 감정과 지혜의 최고사령관으로 사고와 의사결정을 주관한다. 뇌는 수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지는 완전히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예컨대 선생님께서 내 일 책을 외워서 쓰는 시험을 본다고 하면 몇 번씩 반복하며 읽어도 외워지지가

않는다. 어렵게 외웠다고 하더라도, 교실에 들어가 긴장해 버리면 거의 다 잊어 버리고 만다. 귀까지 빨개지도록 당황해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 몇 달 후에 다시 물어본다면 더더욱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의식중 보고 들었던 일들, 예를 들면 길가 할머니의 칭찬, 가을 정원의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은 요술을 부린 것처럼 인상이 깊게 남는다. 이는 도끼로 머리를 찍은 것처럼 기억의 나이트에 기록된다.

과학자가 최근 들어 기억과 망각에 관한 규칙을 발견해 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는 수수께끼이다. 내가 감히 추측해 보자면, 수수께끼의 답은 복잡하지 않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주관하는 증추는 바로 감정이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아름답고, 선하며, 우정이 깃든, 용감한 일을 기억하려 하며, 결코 추악하고, 거짓되며, 배반하는, 비겁한 단편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한다. 이 말이 인간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로 기억을 날조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마치 예쁘고 자그마한 상자와 같아서 용량 제한이 있다는 말이다. 작은 상자는 물품을 저장할 때 엄격한 선별을 거쳐서 우리를 화나고 슬프게 했던 지난 일은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가족애와 우정을 보관한다.

모든 사람들의 작은 상자 속에, 밝은 애정이 가득하길 바란다.

진실을 생각하다

국경일과 중추절이 지나고 심리학 석사 반 교실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였다. 교실 안은 친근감과 함께 나른함이 섞여있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명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다. 분위기가 썰렁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난 조금 당황했다. 우리는 조용히 명절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갑자기 선생님의 질문을 받으니 할 말이 없었다.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다, 아마도 선생님이 겸연쩍을까봐 그랬을 것이다. 먼저 대답을 한 학생은 명절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탄식

하며 말했다. "명절은 그냥 명절이죠. 이전 명절과 다를 바 없이. 명절은 지쳐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음식을 다하면 앞치마를 빨고, 명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명절은 누구의 것인가? 아주 흥미로운 말이지만 나중에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명절에 대해서 계속 말해보자. 중국의 중추절은 왜 휴일이 아닐까? 중국인에게 중추절은 춘절에 버금가는 큰 명절인데 말이야. 명절은 재미있게 보내야만 기억에 남는단다. 내가 아는 한 가족은 명절을 쉴 때 아이들에게 새 옷도 사주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는단다. 이런 명절은 보내나 마나 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지."

모두들 웃었다.

웃고 나니, 활기가 돌았다. 어떤 학생은 작은 목소리로 명절을 보내려 고향에 내려갔는데 집에 가만히 있자니 친구들 곁에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다. 우리 반 학생들끼리는 따뜻함이 가득했지만, 바깥세상은 여전히 먼지가 가득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드나드는 조가비가 되어 자신이 덥고 추운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오늘의 수업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실은 아주 오래된 주제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진실이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진실'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진실의 정의로움과 깨끗함이 좋다.

모든 단어는 고유의 빛깔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비열하다'라는 단어는 듣자마자 몸에 곰팡이가 일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듯하다. '달콤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로열젤리를 한입 가득 넣어서, 달콤함으로 숨이 막히는 듯하다. 진실은 바위와 같은 무늬와 불변함이 있다. 풍화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으며, 산뜻하며 맑고 선명하여 파란 금속의 빛을 내뿜는다.

이야기의 중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집중되었다. 진실은 방법인가 아니면 일종의 경지인가? 진실에는 단계별 구분이 있는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아주 솔직한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선적이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나요?”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실은 더욱 교활한 위선이다.’라는 말을 마치 유행처럼 하곤 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 졌다. 선생님의 눈동자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깊은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선생님은 말했다. "없습니다. 내게 위선적이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등 뒤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건 나의 관심 밖입니다."

선생님은 말했다. "한 꼬마아이가 아줌마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한 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줌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실일까 아닐까? 아마도 진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낮은 수준의 진실이죠. 진실도 격조가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발언했다. "나는 진실을 좋아합니다. 친구들 역시 나를 이렇게 평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해서, 항상 진실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세속의 수레바퀴에 만신창이가 되어 산산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추세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공적인 일과 완벽한 가정 또한 양호한 인간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진실함은 용감하고 솔직한 생활 태도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진실함은 허세를 떨며 호가호위하지 않는다. 그것은 맑고 투명하여, 연약하지만 그 속에 강인함과 유연함이 있어 우리가 깔끔하고 명쾌하며 쾌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진실은 예술의 일종으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선미이다. 진실은 실제와 솔직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위선보다 힘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비교해보라. 고뇌와 시험을 겪을 만 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진실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다. 진실의 출발점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멀리보지 않을 수 있다. 단순한 진실의 부적절한 사용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선(善)이 더해져야만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서 더욱이 전면적이고 위대한 품격을 갖추게 된다. 미(美)에 이르면 더욱 다채롭게 진실에 도달한다.

교실 안은 순간 조용했다. 나는 이 고요함에서 동의와 찬성을 느꼈다.

선생님은 정리하듯 말했다. 진실은 단계가 있는 것으로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향해 건설적인 진실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다

그 때 나는 17살 이었고, 티베트지역 고원지대에서 군부대의 위생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업무는 화학 실험 연구였다.

고원의 설산은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했다. 전기가 없으니 대부분의 의학 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혈액을 연구할 때에는 오직 눈과 손에 의지해야 했으므로, 고생스러움은 물론이고 결과를 확신하기도 힘들었다.

하루는 군인 한명이 실험의뢰서를 들고 나를 찾아와서는 특별한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그가 희귀병에 걸린 것인지 확신 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실험 결과가 있어야만 확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의 피를 뽑아내고, 재빠르게 혈청을 분리해낸다. 그런 다음 섭씨 56도에서 30분간 열을 가한다. 다시 이 혈청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실험의뢰서를 쓴 의사를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이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왜죠?”

나는 말했다.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30분 동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섭씨 56도를 맞춰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계가 있다면 간단한 실험이 되겠지요. 기계의 바늘을 설정하고 온도와 시간을 정한 다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열이 될 테니까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빨간 버튼이 반짝이고, 성공적으로 끝이 나겠죠. 하지만 전기도 없는 이곳의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미닭처럼 혈액 표본을 꼭 끌어안고 온도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의 체온은 섭씨 56도에 미치지 못 하나까요.”

의사는 말했다. “방법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실험 결과가 없다면 모든 치료는 전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됩니다.”

나는 선량하고 또 귀가 얇은 사람이다. 의사의 말을 듣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에 입각해 한참동안 곰곰이 생각한 후, 바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의 부탁을 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군인의 팔은 마치 연필자루처럼 얇았다. 피를 뽑으니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골수를 뽑은 것 같았다.

준비 절차는 순조로웠다. 나는 혈청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인도식 유등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실처럼 휘감겨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슬에서 본 모습 같았다. 따뜻하고 파란 빛을 내는 연기가 열기를 내어 고원지역의 혹독하게 추운 공기를 데워주었다. 나는 직접 철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유등 위쪽에 세웠다. 틀에는 물을 담은 비커를 놓고 수온계를 비스듬하게 꽂았다. 빨간 수온주는 마치 동면하는 뱀 같아 보였다. 수온이 올라가면 빨간 몸을 곧게 펼 것이다.

비커 수온이 섭씨56도까지 달했을 때, 나는 재빠르게 혈청을 담은 시험관을 비커에 넣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온도계를 주시했다. 온도가 올라가면 유등을 철 받침대 가까스로 이동 시키고,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멀리 이동시켰다. 마치 빵을 굽는 요리사처럼 정성을 들여 혈청의 온도를 유지시켰다.

사실 이 실험은 정말이지 무미건조했다. 꼼짝 않고 앉아서 유리비커와 유등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마치 세 살짜리 어린아이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질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무인형처럼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 할 뿐이었다.

힘겹게 유등을 이동시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8분 정도가 되었을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문을 열고 실험실로 들어왔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 귀신 부르는 건 아니지? 별건 대낮에 등은 왜 췌어?”

나는 눈을 치켜뜨며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환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는 거야. 병아리를 부화 시키듯이 혈청에 열을 가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무슨 혈청? 혈청이 어디 있는데?”

나는 말했다. “바로 여기 비커 안에 있잖아.”

나는 눈짓으로 친구에게 나의 발명품을 가리켰다. 내가 다시 수은계로 눈을 돌렸을 때에는 이미 70도 까지 올라 있었다. 나는 겁싸게 시험관을 건져냈다. 친구와 말을 하는 그 짧은 시간동안, 맑은 찻물 같았던 혈청은 강한 열의 작용으로 오래된 호박처럼 응고되어 버렸다.

망했다! 혈청은 내 실수로 계란처럼 익어버렸다. 표본을 폐기해 버렸으니, 실험을 완성할 방도가 없다.

그 때 유등을 산산 조각내버리지 못한 게 한스럽다. 하지만 유등을 산산 조각박살을 낸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 참았다. 어쨌든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실험의뢰서의 공백 칸을 보고 있자니 마치 질문하는 사람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 같아서 뭐라고 기입을 해야 할 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에게 찾아가 다시 한 번 신선한 피를 뽑아서 새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혈액이 목숨처럼 귀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것인가. 그냥 가서 실험이 실패 했다고 말할까? 그것은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일인가! 사람들은 모두들 내가 맡은 바를 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에게 먹칠을 할 수가 있냐 말이다.

생각하고 또 한참을 생각 한 끝에 나는 어떻게 환자에게 말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나는 군인을 불렀다. 그는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놀란 새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17살 소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혈액 검사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은 서리받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혈액에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건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는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어렸지만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이용할 줄 알았다.

“음...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검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험 결과

만을 가지고서는 최후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일부러 오래도록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고, 불확실해 보이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불꽃이 타올라, 마치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연약하고 힘없는 머리를 딱따구리처럼 끄덕이더니 말했다. “번거롭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 당신에 대한 책임감과 당신 병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을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돌고, 눈이 물기를 머금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는 말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젊으신 분이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도 깊다니.”

군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는 팔을 드러내며 내게 다시 피를 뽑으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얼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그의 혈관에 조심히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짙은 혈액 두통을 뽑았다.

유등의 불이 다시 피어올랐다. 나는 시종일관 신중하게 실험에 임했고, 결과를 얻었다.

그의 혈청은 음성반응을 보였다. 병이 없다는 뜻이다.

군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저번에 재검사를 통보 받았을 때, 나는 내게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요 며칠 동안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날 들을 회상해 보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의 검사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위해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군요!”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난 후, 상사와 동료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하기까지 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나서 오래 동안 나는 자신이 순발력 있고 지혜롭게 잘 넘어 갔다고 생각 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 청춘은 오래 전에 지나갔고, 몸은 오래된 트랙터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나도 큰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검사결과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돼서야 내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의사의 표정 하나하나와 말투, 안색을 살피게 될 것이고, 간호사의 말을 천번 만번 음미할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나는 그때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은 얼마나 약해졌을지 알겠다.

만약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면, 나는 군인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말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실험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화를 낼 것이고 나의 무책임함을 질책할 것이다. 사천 지역 사람들의 불같은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욕설 몇 마디도 오고 갔을 것이다. 나는 그가 안정을 찾을 때 까지 쓴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소매를 걷고 연필처럼 얇은 팔을 내밀며 피를 뽑으라고 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형편없다 말하고 다닐 것이고,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픈 환자를 겁줘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아플 때는 정신이 마치 늦가을의 광야 같아서, 아무리 약한 찬바람에도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보석을 아끼듯 환자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자.

마음에는 반창고를 붙이지 말자

나는 몇 차례 강연을 한 경험이 있다.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교, 군대와 교도소, 농촌의 흙벽돌로 지은 교실과 미국의 가장 호화스러운 사립대학에서 까지... 의학박사에서부터 뉴욕 빈민가의 아이들 등등 다양한 군중들 속에서 나는 매번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내 기억 속에 잊혀 지지 않는 강연이

있다.

그곳은 명망 있는 대학교로 몇 번이나 나를 초청하며 학생들이 나와 토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 거절했다. 뻗속까지 연설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매번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며칠을 긴장하며 보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고집스러웠다. 한번은 나를 초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상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심지어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을 뛰어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연설자를 당황시켜 한번은 연설자가 기가 죽은 채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나의 호기심이 발동했고 나는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날짜를 정했다.

당일 대학교 강당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뻑뻑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강단에 올라 서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문화혁명 시기의 비판투쟁 회의장에 들어선 것처럼 오늘 무슨 장면이 연출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역시나 내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쪽지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손에는 한 무더기가 쌓였다. 마치 늦가을 환경미화원이 청소한 낙엽들 같았다. 강연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낙엽들 중에 어떤 폭탄이 숨겨져 있을까하는 추측을 해봤다. 연설이 일단락 지어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나는 얼른 산더미 같은 쪽지를 열어서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쥐죽은 듯 고요해서 마치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쪽지를 보고 나를 칭찬하는 말이 있으면 읽지 않았다. 그 외에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까지 진심에서 우리나라오지 않는 거짓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쪽지를 읽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적합한 질문이라고 말했고, 진심을 담아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전에 티베트의 아리지역 설산에서 근무를 할 때 아득히 먼 하늘과 가파른 빙하를 바라보며, 마치 고대의 원시인처럼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 나는 사람은 젊을 때 셀 수 없이 많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낮과 밤을 고민했고, 드디어 대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나긴 사색의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광야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내가 강연을 해오며 받은 박수 중 가장 격렬했다. 그 전까지 나는 ‘우레와 같은 박수’ 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 졸렬한 비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믿게 되었다. 나는 얼른 그만하라는 손동작을 했지만 박수는 한참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말했다. “모두들 조금하게 박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삶의 의미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렇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토론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고 들어서 이미 실증이 나버렸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타인이 당신에게 강요한 삶의 의미는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답안을 주입 당한다.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의 간곡한 타이름과 여러 형태의 교육 또한 끊임없이 삶의 의의를 도매식으로 내게 팔아넘긴다. 하지만 이러한 외재적 프레임을 자신의 내재적 골간으로 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 날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말했다. “이번 강연의 가장 큰 수확은 중년의 입에서 생생하게 나오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중국의 젊은이들만 삶의 목적이라는 문제에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명망 있는 대학인 하버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청년시기에 자신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 어느 해 하버드 대학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 목적에 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27%의 학생은 전혀 목적이 없었고, 60%는 목적이 모호했다. 10%는 가까운 목적만을 정했으며, 그중 오직 3%의 사람만이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세우고 있었다.

25년 후, 그 3%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참고 노력하여 사

회의 엘리트가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내가 이 연구 결과를 언급한 것은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국학생이던지 외국 학생이던지 모두 상당한 모호함과 혼돈으로 다가온 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다. 그게 뭐가 어떤가. 나는 천천히 성장해가면서 내 삶의 의의를 찾아 가겠다.

나는 평소에도 청년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갖은 고민을 들어 주곤 한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난 후, 나는 도움을 갈구하는 눈빛을 한 편에 잠시 놓아두고 묻는다.

“당신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란다. 내가 그들의 근심거리를 잘 들었는지 의심하는 듯하기도 하다. 심지어는 내가 왜 구체적인 문제는 못 본 체 하면서 이런 똥딴지같은 질문을 하는지 성을 내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자신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화제를 돌려 얼버무린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말한다. “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젊은이는 보통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내가 지금 처한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긴다. 나는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의 만사 만물은 모두가 연결되어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상의 문제가 특정한 외부 자극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심리와 삶의 목적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사실 인생의 큰 목적에 혼란과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남자가 나를 찾아 왔다. 자신이 말이 너무 빨라서 고민이라고 했다. 최근 마음이 잘 맞는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녀는 남자가 말이 너무 빠른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가 속사포처럼 말을 하고 나면 여자 친구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했다. 또 그가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그를 자신의 엄마에게 소개시켜 줄 수 없다고 했다. 왜냐면 어머니는 침을 튀어가며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말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나를 보았다. 만약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삶에서 일과 사랑을 망쳐버린 흉악범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나요?”

그는 말했다. “만약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내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현대 사회의 리듬이 이렇게 빠른데 내가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만약 당신 생각대로라면 사회의 리듬은 점점 더 빨라지고 당신은 젠말놀이나 하고 있지 않겠어요? 당신의 예비 장모님도 이런 사람을 원하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예의가 바른 사람을 좋아하겠지요.”

그는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말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병존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말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확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는 말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말하고 더 많이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도 웃었다. 나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 말하는 속도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까지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전전긍긍하는지 대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꿈을 알려줄 테니 비웃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말했다. “나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말했다. “이제 문제의 진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군요. 정치가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들의 설득력은 말의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떠나서 자신의 신념이 무의식중에 표출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당신이 이렇게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말을 점점 더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의 대화는 여기까지였다. 후에 이 남자는 자신의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으며 여자 친구는 예비 장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장모님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한다.

말 빠른 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번엔 여자 석사 한분이 날 찾아 왔다. 그녀는 말이 너무 느려서 고민이라고 했다. 말이 너무 느리니 주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무슨 꿈꿉이가 있다고 오해해서, 자신과 친구 되기를 꺼린다고 했다. 또 그녀가 천천히 내뱉는 말의 배후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도저히 빠르게 말할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는 속도는 정말이지 사람을 억누르는 듯, 말의 배후에 또 다른 한 마디를 숨겨둔 것과 같아요.”

나는 그녀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매우 초조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모든 한마디 말은 신중한 생각 끝에 내뱉은 말 아닌가요?”

그녀는 말했다. “맞아요. 만약 생각하지 않고 말을 잘못 내뱉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여자 석사는 말했다. “나는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요. 집안에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또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공부를 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게 학비를 주지 않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같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나는 거듭 생각해서 말을 꺼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도 잘 챙겨 먹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었는지 왜 물을까’ 라고 생각 할까봐 겁이 났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은 자신의 모든 말이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석사는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말 한 마디는 빨리 말하네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거든요.”

나는 말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신 말이 느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생동안 누구도 믿지 않고 살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말하는 속도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타인을 믿는다면 말하는 속도는 자연히 적절해 질 것입니다.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 석사 역시 상담 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졌다.

오늘 우리는 큰 목적에서 시작해 결론은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맺어졌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사람의 심리는 두공 바침 형식으로 지어진 궁전과도 같다. 이 궁전의 기초는 바로 자신 인생목적에 대한 계획과 세계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기본 견해이다. 겉보기에는 기술적이고 표면적인 몇몇 문제들은 사실 기본적인 인생관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리문제는 결코 근본적 대책없이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창고처럼 임시로 작은 상처를 덮어두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영혼을 강하게 단련시킬 수는 없다.

사장님용 의자에서 일어서세요

나는 심리 상담사다.

언젠가 한번 회의가 끝나고 회식을 할 때였다. 사장님 한분이 나의 직업을 알고는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이 눈빛은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업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다함께 굽은 길을 따라 산책을 했

다.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굽은 길에 지날 때에, 그가 내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음… 혹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마음이 너무나 초조합니다. 몇 번이나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뛰어내릴 건물 아래 지면은 어떤지 둘러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바닥이 딱딱하지 않아서 죽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은 22층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해서 만유인력의 불가항력을 잘 알고 있죠. 제가 두려운 것은 길가에 행인이 많아서 내가 추락할 때, 그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인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는 마치 궤도를 벗어난 열차처럼 점점 더 빨리 말을 했다. 얼굴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안중에 없었다. 그는 나의 표정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여기는 진료소가 아니고 예약도 하지 않았다.

비록 우연히 만나기는 했지만, 이 짧은 대화에서 그가 심리적으로 폭풍과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에는 상담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나도 역시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심리 상담사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하고 나니, 그가 마음 깊이 걱정 되었고 또 불안했다. 그에게서 죽음이 갖는 듯한 검은 기운을 분명히 느껴서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빈번히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지쳐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기뻐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예뻐 죽겠다.”등등. ‘죽음’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무언가를 과장해서 형용할 때 사용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본래 이 단어의 서늘한 함의를 잊고 사용한다.

그러므로 심리 상담사로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말이 어느 정도가 진심인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이 직업의 기본 능력이다.

젊은이는 항상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괴로움의 맛을 모르므로 나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다. 만약 실연당한 여성이라면 큰 소리로 엉엉 울게 하고 내보낸다. 나 또한 마음깊이 그녀를 이해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그가 우아한 용모와 깔끔한 복장을 하고, 말과 태도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느껴지는 중년남성이라면 그는 쉽사리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어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이는 그가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화가 오가는 중에 그의 사무실의 높이가 22층이라 말했고,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자살의 장소와 성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적이 드문 깊은 밤으로 시간까지 정해두었다. 그의 기본적인 자살계획은 이미 정해졌고, 결단과 허공을 향해 뛰어드는 한걸음만 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타인이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자신감에 차고 잘 나가던 기세가 등등하고 득의양양한 사업가 몇 명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죽음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죽음은 영원한 비밀로 남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죽기 직전 크고 깊은 심리적 갈등을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의 늪에 빠져 사업도 내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버렸다는 것이다.

심리 상담사는 통상 심각한 일도 담담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때로 응급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이 중년 남성이 바로 응급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수방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아요. 특별히 당신께 심리 상담을 해 드릴게요.”

그의 눈에서 열린 빛이 반짝 거렸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그가 나를 완전히 믿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에서 심리 상담은 신흥 학문분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 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냥 신비하다고 여기거나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우리 문화권 안에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혼란스러움과 정신분열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사게 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정신건강에 무관심했으며 그것을 돌보고 아끼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한다면 자신 본인과 그의 가족, 친구들은 세심하게 그를 돌볼 것이다. 그에게 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가 시간에 맞춰서 약을 잘 먹는지 신경 써주며 그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체의 건강은 세심히 보살피면서, 모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건강은 경시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남자 사장님은 용감하고 현명했다.

그는 말했다. “심리 상담을 언제 시작하나요?”

나는 말했다. “적합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는 말했다. “심리 상담을 받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나는 말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쉬우면 아쉬운 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방음이 잘 되는 방으로, 따뜻하고 깨끗하며, 의자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호텔 사장님과 아는 사이이니, 방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부터 나는 다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준비를 한다.

그는 아주 조금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함께 어떤 빌딩으로 들어가서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방은 크지 않았으며 아늑하고 고상했다.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사무용 테이블이 있었고, 검은 가죽으로 된 사장용 의자가 위엄 있는 느낌을 줬다. 벽 쪽에는 낮은 가죽 소파가 있어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었다. “어떤가요? 그런대로 괜찮나요?” 사장님의 어투는 분명 의문이었지만, 어조가 강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아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사장님용 의자로 가서 엉덩이를 붙였다. 착석과 동시에 손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도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세요. 저는 이런 사장님용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해요.”

나는 아직 중앙에 서서 그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에게 말했다. “방음은 잘되는 것 같아요. 다만 방이 좀 커서 아쉽네요.”

그는 좀 실망한 듯 말했다. “이 방이 여기 호텔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더 작은 방은 청소부들이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곳 밖에 없어요.”

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여기 밖에 안 될 듯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놀라서 말했다. “내가 왜 신경 쓰겠어요. 선생님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걸로 됐어요.”

나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작고 방음이 잘 되는 방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이야기하러 온 사람에게 안정감과 상담사에 대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내가 아직 서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는 말했다.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당신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당신은 왜 아직도 서있나요?”

난 웃으며 말했다. “나만 앉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사장님용 의자에서 일어나 주세요.”

“왜요?” 그의 황당한 표정에는 약간의 분노도 섞여있었다.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그의 성공적인 삶에서 아무도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잠깐 동안 멍해 있었다. 나는 그가 지능지수가 높고 반응도 재빠른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그는 말했다. “당신의 뜻은 내가 이 의자에 앉고 당신은 소파에 앉으면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심리 검사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나도 소파에 앉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이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닙니다. 소파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말이죠.”

그는 정말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중얼 말했다. “여기도 앉지 말라하고 저기도 앉지 말라하니, 창가에 있는 화분을 뒤집어서 앉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먼저 도착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사장님을 방에 두고 아래 층 직원을 찾아가서 나무의자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난처한 듯 말했다. “우리 호텔에서 손님

을 위한 의자는 모두 부드러운 소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딱딱한 의자밖에 없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의자를 보고 말했다. “저것인가요?”

그들은 말했다. “네, 맞아요.”

난 말했다. “이 의자면 되겠네요. 이 의자를 방까지 옮겨주시겠어요? 그런 다음 수고스럽겠지만 방안의 사장님 의자와 큰 테이블은 좀 치워주세요.”

직원은 곧 나의 부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다들 들락날락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사장님은 줄곧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산스러운 것은 질색인데 꼭 이래야 하나요?’ 라는 의미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잠시 그를 못 본체 하며 정리가 다 되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흔들어 그를 불렀다.

방에는 의자 두 개가 45도 각도로 놓여 있다. 깔끔하고 심플했다.

“저는 어디 앉나요?”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어느 의자든 상관없습니다. 두 의자는 똑같으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앉았고 나도 앉았다.

....

심리 상담이 끝나자 그는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 그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에너지가 생긴 것 같네요.”

나는 말했다. “좋아요. 축하합니다. 에너지는 마치 샘물과도 같으니 조금씩 모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은 못이 됩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그는 말했다. “비밀이 아니라면 왜 나를 사장 의자에서 내려오게 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 평범한 나무의자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말했다. “비밀이 아니니 당연히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추측이 틀리지 않다면 당신이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도 그것과 비슷한 사장님 의자일 것입니다. 거기에 앉게 되면 익숙한 역할에 빠져 버립니다. 소파에 앉은 나는 시선이 당신보다 밑에 있게 됩니다. 보통 당신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나 하청업체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틀이 되어 스스로를 사장으로 규

정직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이제까지 맺어온 어떠한 관계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상하 관계도 아니고 상업적인 관계이거나 해를 입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친구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한데 어울려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는 진실되고 새로운 관계로서 가장 강력한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철저하게 비밀로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나 역시 심리 상담사로써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심리 상담사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입니다. 사소한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에 빠진 후 그는 다시 말했다. “소파도 평등하지 않나요? 똑같은 높이에 기울어지지도 않잖아요. 내가 소파에 함께 앉자고 하니 당신이 거절했어요. 소파는 의자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는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말을 마치자 그는 자신의 허리를 두드렸다.

나는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소파는 정말 편해요. 하지만 너무 편한 환경에서 말을 하면 우리 신경계통의 각성과 깊은 사고를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소파는 휴식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생각할 때는 나무의자가 소파보다 좋아요.”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심리 상담은 정말 새로운 영역인 만큼 조건도 특별하네요. 다음에 상담을 받을 때는 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겠죠.”

나는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어둠의 동굴을 탈출하다

그 여자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깡마르고 연약한 모습이 마치 밝아 납작해진 음료수 캔 같은 모습이었다. 자꾸만 그녀의 손으로 시선이 갔다. 작은 손바닥과 짧은 손톱. 손톱을 얼마나 짧게 잘랐는지 손톱이 조금도 보이길 원치 않아 뼈 속으로 숨기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바로 그 두 손으로 다른 남자를 도와 어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그로 인해 남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며, 그녀도 역시 감옥에서 한 평생을 보

내게 되었다.

그녀는 어릴 때 작은 마을에 사는 성격이 활발하고 승부욕이 강한 여자아이였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그녀에게 간장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부랑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부랑자는 붙잡혔다. 가족들은 이 사건이 없었던 일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길 바랐다. 하지만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기억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졌다. 여자아이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라서인지 키가 점점 자라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했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를 내뿜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강도가 여자아이를 해칠 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 씨앗이 너의 몸에 뿌려졌으니 앞으로 네가 어딜 가든지 난 널 찾을 수 있어.”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 이 이상한 냄새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커갈 수록 냄새는 점점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한 냄새는 마치 죽은 시체 주위를 맴도는 까마귀처럼 항상 자신의 주위에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냥개보다 민감한 코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자신의 냄새를 맡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자고 애원했다. 부모님은 자꾸만 위축되어가는 딸아이가 가여워서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사를 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집안의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아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곳에서 다시 생명력이 피어났고, 후각은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녀는 유독 세수와 샤워를 좋아하는 것 빼고는 평범해 보였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씻었다. 품행과 학업이 훌륭해서,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 전문학교에 합격했다. 모든 것이 낯선 새로운 학교였지만,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여전히 씻는 것에 집착했다. 저녁밥을 먹을 돈 밖에 없으면 차라리 배를 굶아서라도 향이 진한 비누를 사서 온 몸을 거품으로 뒤덮어 씻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정감이 들었고, 때로는 열은 미소를 짓기 까지 했다.

어릴 적의 그림자도 청춘의 활력에 자리를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주변과 다르지 않은 아가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좋아. 너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좋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신에게도 있으며, 그녀의 삶 속에 날카롭게 들어왔다는 것을 번뜩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스스로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녀는 다만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자신에게 날아온 화살을 다시 되돌려 날려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고집스럽고 고통스럽게 사랑을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몸을 씻는 일이 더 빈번해 진 것이다.

모든 것이 순탄한 줄 알았지만, 고난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날,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천둥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익숙한 고향 방언이 들렸다. 그녀의 작은 고향 마을에서 새로운 학생이 입학한 것이다. 아무리 모르는 척 연기를 해봐도, 그 여자아이는 귀신같이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겁이 났다. 비통한 운명을 예감했고, 전쟁터에서 바람이 불어오듯 피비린내가 코에 닿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유년시절 사건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찾아와 물었다. “그 말, 사실이야?”

그녀는 절망했다. 너무나 절망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빨강계 충혈 된 눈으로 분노에 차서 말했다. “사실이야! 이제 어쩔 건데!”

그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사실이라 해도, 난 널 사랑해.”

그 순간, 그녀는 온 세상이 바뀌는 듯 했다. 이런 애인이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그 험담을 하고 다닌 여학생을 혼내주기로 했다. 강가로 그녀를 불러 말했다. “너 왜 우리 험담을 하고 다닌거야?”

그 여학생은 마음 깊은 곳까지 그러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그럴싸하고 장황하게 말했다. “난 너희들 험담 한 적 없어. 여자 아이에 관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여학생은 심지어 건방진 표정을 하며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한 말 사실 맞잖아, 네가 말해봐.”

여자는 갑자기 어디선가 그날 강도의 냄새를 맡았다. 그 강도가 이 여자의 몸속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다. 그 강도가 악착같이 자신을 찾아내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려 한다고 느꼈다. 수년간 쌓아온 분노가 폭발해서 자신을 헐뜯하던 그 여자의 입을 내리쳤다. 그러곤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때려죽이자!”

그 남자는 거대한 두 손으로 신입생의 목을 졸랐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연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나팔꽃 한 송이처럼 힘없이 부러져버렸다. 다시 붙일 수도 없었다. 여자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때의 영상을 수천 번 돌려봤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연약한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마음 깊이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살인범이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방금까지만 해도 흥악무도하게 자신들을 헐뜯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이 없는 여자를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우리 도망가자. 지구 끝까지 도망가자. 더 이상 도망 갈 수 없을 때, 같이 죽자.” 그들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시체를 숨기지 않고 싸움이 있었던 강가에 그대로 두었다. 그녀가 깨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있는 돈을 챙기고 다급하게 기차에 올랐다.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황량한 들판의 작은 길을 목적 없이 걸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겐 결혼과 신혼여행을 대신해 여행 중이라고 둘러댔다.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났다. 그들은 운남 지역에 '연인의 절벽'이라는 깊은 산으로 가서 손잡은 채 절벽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꺼내, 현지 사람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부탁했다. 밥을 먹고 뛰어 내리려는 계획이었다. 현지 사람이 "당신들 말하는 것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듣던 말투와 똑같은 걸 보니 베이징 사람인가요?" 하고 물었다.

곧 죽을 목숨인데, 더 이상 도망 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평생 베이징을 꿈꿔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려서 직접 가보지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징 사람을 두 명이나 봤으니 재수가 좋군요.”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 주었고, 밥값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배부르게 먹었다. 인생에 마지막 한 끼인데 배불리 먹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양껏 먹고 나니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서로 상의 끝에 여기서 죽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깊은 산 속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발견될 것이고, 노인이 이를 알게 되어 그들을 알아보면 몹시 상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힘들게 만난 베이징 사람이 지명수배자라니. 베이징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은 둘째 치고, 이 노인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들은 연인의 절벽에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니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죽을 거니 다른 데서 죽는 것 보다는 집에서 죽기로 합의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바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서 내게 물었다.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나는 말했다. “당신 몸에서 향기로운 치자나무 향이 나요.”

그는 슬픈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비누는 특별한 비누예요. 하지만 냄새가 오래가지 않아요.”

“나는 그런 종류의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예요. 다른 종류의 바로…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냄새를 느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치자나무 향 말고 다른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의 삶에 이제는 다시 그를 볼 수 없어요. 내세가 있다고 해도 천상이든 지상이든 바다처럼 망망한데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견우와 직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 년에 한번은 오작교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오작교는 얼마나 아름다운 다리인가요. 나와 그는 만난다 하더라도 오작교가 아닌 백골로 만든 다리에서 만나겠지요. 다리 밑으로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닌 빨간피겠죠…”

그녀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자아이가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 그녀의 심리는 비정상적으로 발전했고, 강간범의 망언이 악의 주문처럼 그녀의 행동과 심리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성장했고, 어렵게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자를 찾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어둠의 그림자로 자신을 깊은 못에 내던졌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에 빠뜨리고 말았다.

제 3자가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녀에게 분명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힘들게 찾아보고, 피흘리면서 부딪쳐 봐도 그 문제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없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자신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처가 희미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상처는 잔혹한 모습을 드러내,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은밀한 상처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 한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제멋대로인 황당한 바람일 뿐이다.

기억을 다시 드러내 치료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을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택할망정 자신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깨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뒹버린다면 그 상처는 언젠가 무의식중에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건강한지 잘 관찰해야 한다. 마음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려 노력해야 하지, 절대로 억압하거나 은폐하고 감춰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한다.

여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공무 관계로 나는 자주 여행을 한다. 여행을 떠나면 집에 있는 것 보다 고생스럽다. 이는 당연한 말이다. 중국 옛말에 ‘집에는 아무리 머물러도 좋지만, 밖으로 나가면 고생길이 열린다.’ 라는 말이 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 몸에 녹이 스는 것처럼 온 몸이 근질근질해서 얼른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못 견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편안함과 휴식을 취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일까. 따뜻한 집을 떠나서 어떤 새벽 혹은 깊은 밤에 의연히 떠나면 타향으로 떠나게 하는 것인가?

물론, 많은 경우에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미룰 수 없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여행길에 오른다.

언젠가 한번 나는 초대를 받아 외국을 방문했다. 예정된 스케줄을 마치고, 초대할 쪽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었다. 내가 이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펜을 들어 써 내려갔다.

‘기차나 시외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초대측은 그 종이를 보고 또 보더니 말했다. “좋아요.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요?”

나는 말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나는 한 나라와 민족, 그 땅과 산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천천히 둘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달리는 속도, 변화하는 풍경, 색다른 조우,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여행 중에 자주 마주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 도전의 자세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호기심을 이끌어 낸다. 판에 박힌 듯 피곤한 일생에 신선한 기치를 내거는 것이며, 기

계적인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작은 삶의 터전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근력을 떨어뜨린다. 이때 배낭을 메고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한 후 여행길에 오르자.

여행을 소중히 여기자. 잠들지 못하는 기차에서의 늦은 밤. 창가에 기대어 서서 철로 레일의 가로등을 바라보자. 반짝이던 보라색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많은 기억이 유령처럼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보면 서로 알게 된지 몇 시간 밖에 되지 않은 여행 동반자에게 진심을 털어 놓고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공감한다. 나는 심지어 이렇게 해서 평생의 동반자를 찾은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

누군가는 여행 중에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차에 올라타고, 같은 배를 타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행은 인성의 따뜻한 면을 확대시킨다.

여행 중에 위기와 비바람을 만날 수도 있으며 고통과 고난도 함께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여행은 미지의 매력으로 충만해 있으며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어떻게 하면 외유내강해 질수 있을까?

상담실 미색 소파에 아름다운 한 여성이 앉아있다. 그녀는 수가 놓인 남색 실크 브이넥 상의를 입고 있다. 옷자락에는 담황색 수선화 모양의 수정 브로치가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다. 하의는 상아색의 통이 넓은 긴바지를 입고 있고 우아한 꽃향기를 사방으로 내뿜고 있다. 복장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은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속마음을 몰래 드러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결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평온하며 자신감에 차 있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에는 어떤 격렬한 감정의

부스러기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왜 이곳을 찾은 것일까?

“당신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 못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추측할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는 사람이 지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내게 수수께끼를 내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녀는 내가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을 보고는 말을 이었다. “나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도 정상입니다. 정말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모두 나를 찾아요. 내가 반정신과 의사라고 말해요. 심리학 관련 책도 많이 읽어서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유심히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표시를 했다. 맞다. 나는 이러한 젊은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남을 돕기를 자칭한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엄격한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지 결코 책을 보고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정상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의 눈에 나는 정말이지 성공한 사람이죠. 봉급이 높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차도 있고 방도 있죠. 즐거운 편이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유내강 할 수 있죠?”

나는 말했다. “당신이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때때로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면 깊이 알 수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남색 비단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나는 패션 잡지를 많이 읽어서 어떻게 미소 짓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요. 나의 이런 행동거지와 차림새가 숙녀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나는 말했다. “그래요.”

남색 비단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거짓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사무실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절대로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모두를 감동시키고, 또 나의 미소로 균열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막 시작 했

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모두들 내가 사무실의 한줄기 봄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봄바람은 가을바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북서풍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숙녀의 품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면, 나는 다른 의견 때문에 벌컥 성질을 냈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공격의 창끝이 직속상관을 향하기도 했고, 심지어 사장님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출장 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연약한 여성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입을 열기만 하면, 마치 장전된 기관총처럼 단숨에 모두를 공격했죠. 만약에 내가 항상 이런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내 성격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화를 내고 나면, 곧 후회하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마치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의 껍질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가 싫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의 일부분이죠.”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녀는 고난의 늪에 빠진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휴지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살짝 얼굴에 갖다 댔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물을 닦지 않고 눈 주위와 뺨에 살짝 닦는 모습이 화장이 지워질까 봐 조심하는 듯 했다.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 까지 기다린 후, 나는 말했다. “그럼,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유내강은 어떤 것입니까?”

남색 비단 옷을 입은 여성은 순간 활력을 보이면서,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그때 해외에 있었어요. 호텔 측에서 한 인도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았어요.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는데도 호텔 측은 그녀가 값비싼 탁상용 전등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변상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으니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나라면, 꼬치꼬치 따져가며 격하게 논쟁하고 크게 소란을 피우며 그들에게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성은 화려한 사리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내지 않으면서 두 시간의 논쟁동안 얼굴에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호텔 측에 맞서서 그녀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발작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품위를 잃지 않

있어요. 매순간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응했죠.”

“이렇게 겉으로 파도가 일지 않는 품격은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여자의 눈빛에는 동경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자신을 잘 컨트롤 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군요. 단단해야 할 때는 반석처럼 단단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는 뼈가 없는 것처럼 유연하게 말이죠.”

그녀는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머리를 써 보아도 난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냉정한 척 해보지만 사실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곤 합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무슨 불만이 있을 때 스스로를 압박하곤 하지 않나요?” 남색 비단옷을 입은 여성은 말했다. “그건 당연하죠. 노련하다, 사회성이 있다, 하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은 어려서는 항상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죠. 어렸을 때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회경험이 결핍된 미숙한 모습인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배우고, 여지를 남기는 말을 매워갑니다. 사회의 예의범절은 사람을 에워쌉니다. 나는 이런 틀 속에서 단련이 되어 결국 항상 스스로의 진짜 감정을 압박하고, 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러한 고민을 나도 마음 깊이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을 말할 때,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상사가 오해를 할 때,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못된 심보로 비춰질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예의범절은 생각할 수도 없고 품격을 잃어버리고, 순간 분노에 치를 떨며 목청이 커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동병상련인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네요. 선생님은 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말했다. “저는 변화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감정은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 역시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우

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진짜 감정을 감추기 보다는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적자지심(赤子之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의 일부분을 마음속에 감추는 것을 배웁니다. 성장과 동시에 불행히도 내면과의 접촉을 잃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정을 숨기는 것은 정말이지 비극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그 사람의 가치관과 본능이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감정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을 압박하는 것과 같다. 중국 고대 사람들은 치수(治水)를 함에 있어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며 막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은폐해 버리는 것은 감정이 어두운 곳에서 들불의 잿더미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퍼져나가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나운 화염을 내뿜게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나서, 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만약 나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단순히 나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분노는 품위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더 이상 다른 일을 하며 나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데 힘을 쏟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분노가 방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치 이슬처럼 아무런 소리없이 조용하게 땅에 스며들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노는 마음 한구석에 잠복해 있다가,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른다. 점점 몸집을 키우며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폭발하고 만다.

만약 스스로가 화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속의 감정을 중시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왜 화가 났는지 물어야한다. 원인을 찾고 나서는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대면하여 분노를 승화시키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동안 나는 동북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머리가 아팠다. 동북 사람과 자주 마찰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시장에서도 동북에서 온 승객 혹은 판매원과 말다툼을 했다. 결국 어느 날 나의 이런 나쁜 감정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억의 무덤을 파헤쳐 지난 일을 탈탈 털어냈다.

그 당시 나는 티베트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동북 사람이 아무런 이

유도 없이 내게 욱을 했다. 반박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때 나는 아직 어린 여군이었고 그는 고참이니 나는 그를 존중해야 했으며, 그의 말에 복종해야 했다. 싸우려 드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분노가 쌓여서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엉뚱한 곳에서 분노로 표출되어서 동북 사람의 억양이 들리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해서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마음이 안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사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모두 이야기 해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외유내강의 외유, 즉 부드러운 모습은 단지 겉모습이며 기술적인 부분으로 단순한 숙녀의 기품은 한 순간에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군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기술은 도리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분출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장소에서 통제력을 잃게 든 다는 말이에요. 외유는 내강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하겠어요. 내강, 즉 강한 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하구요.”

“네,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수련합시다. 마음이 평화로워 졌을 때 표현하는 기술을 통한다면 그때는 외유내강 해결 수 있겠죠.”